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국립수목원 '1일 식물학자·곤충학자 되어 보기' “식물학자·곤충학자의 하루 체험해 봐요”



여러 종류의 곤충을 모니터링하는 학생들. 국립수목원 제공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의 모습은 어떨까. 국립수목원은 식물·곤충 등 생물학자를 꿈꾸는 중학생들을 위해 '1일 식물학자·곤충학자 되어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중학생들은 '식물학자' 코스와 '곤충학자' 코스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식물학자 되어보기 프로그램은 산림생물종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식물이 생장하는 국립수목원에서 식물 연구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프로그램. 임업연구사의 설명에 따라 식물분류법을 익힌 후 식물을 채집해 어떤 식물인지 동정(생물의 특징을 연구하여 어떤 분류군에 일치하는가를 결정하는 작업)해 본다. 직접 채집한 식물을 토대로 자신만의 식물 표본도 만들어 본다.

곤충학자 되어보기 프로그램의 큰 틀도 식물학자 되어보기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임업연구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곤충학자가 하는 조사방법을 체험해 본다.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를 비롯해 여러 곤충을 모니터링하고 전시된 곤충 표본을 참고해 곤충 도감을 만든다.

두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은 국립수목원 내 자원을 활용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을 방문해야 한다. 최대 60명까지 한 번에 교육이 가능하며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내에 프로그램 예약 메뉴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10월까지 운영되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수목원을 방문한 이들의 입장료 및 주차료도 면제된다.

체험활동 연관 직업

- * 식물학자: 식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생물학과 식물학 전반에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곤충학자: 곤충들의 생활이나 습성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으로 곤충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적 호기심이 풍부해야 한다.
- 식물학자, 곤충학자는 식물, 곤충에 대한 공부나 생물학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연구에 몰두해야 하므로 끈기가 요구된다. 평소 자연현상이나 자연에 관심을 가지며 꾸준히 공부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도움이 된다.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 선거교실’
 “미래 유권자로서 민주시민의식,
 모의선거로 다져요”



가상의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모의선거를 해 보고 투표·개표 절차를 체험해 보는 학생들. 서울시선관위 제공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와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바로 아는 것은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중학생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3교시로 나뉜다. 1교시 ‘민주주의와 선거’ 시간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선거에 대해 알아본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2교시 ‘매니페스토와 약속’은 학생들이 직접 정책 선거를 체험해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조별로 역사적인 인물 중 한 명을 가상의 학생회장 후보로 선정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 중심으로 포스터를 만든다. 이후 각 조의 공약이 이행 가능한 공약인지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3교시에는 2교시에 선정한 가상 학생회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공약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표를 하고, 실제 개표절차에 따라 △개함부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개표도 진행해 본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거 절차를 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민주주의 선거교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9~10월 중 진행된다. 한 회당 15~3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담당자와 전화 협의 후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765-4616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지역활동 연관 직업

선거행정직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관리와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을 관리한다. 선거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그밖에 정당의 정치자금 사무관리 및 민주시민교육, 선거·정치제도 연구 및 국제교류·협력, 투·개표시스템 선진화 및 전자선거시스템 연구 등의 업무도 맡는다.